

호쾌한 '해적'들의 로맨틱한 모험



“원작을 단순히 재현한 것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핵심만 압축해 현대적 호흡으로 다시 써낸 작품입니다.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사랑과 모험, 희망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시립발레단이 제141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해적'을 무대에 올린다. 오는 26일(오후 7시 30분), 27일(오후 3시·오후 7시) 모두 세차례.

시립발레단은 15일 문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작품 설명과 리허설을 진행했다.

'해적'은 프랑스 시인 바이런의 서사시를 원작으로, 납치된 여인 메도라를 구하기 위해 해적 콘라드가 동료들과 펼치는 모험담을 담은 고전 명작이다. 노예를 하렘으로 끌고 가려는 지배자 세이드 파사와 이에 맞서는 해적들의 대결, 그리고 사랑을 향한 투쟁이 역동적인 군무와 화려한 무대 속에 펼쳐진다.

무엇보다 이번 무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프리모르스키 마린스키 발레단 예술감독 엘다르 알리에브가 만든 새로운 버전으로, 광주에서 국내 초연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알리에브는 “발레는 시대에 맞춰 갱신돼야 한다”며 “전통적 장면을 현대적으로 재서사화해 누구나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고전의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장면을 덜어내고, 캐릭터를 오늘의 관객의 시선에 맞게 재해석해 2시간 안에 압축한 것이 특징이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해적’은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광주시립발레단 '해적' 광주 초연

26~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러시아 안무가 엘다르 알리에브 참여

명작이지만 이번 공연은 차별화된 해석을 담은 우리만의 레퍼토리라며 “간결하고 빠른 전개, 논리적 서사, 남성 군무의 강렬한 비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버전은 남성 무용수들의 비중과 난도가 크게 높아졌다. 주역 콘라드 역의 박관우·박범수 무용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배우는 느낌”이라며 새로운 스타일과 테크닉을 체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덕분에 남성 군무의 힘 있는 도약과 정교한 파트너링이 어우러지며 작품 전체를 이끄는 에너지와 활기는 한층 더 두드러진다.

또한 오리지널에서 변형·추가된 전송된 파트와 군무는 이번 무대에서는 새롭게 재구성됐다. 특히 ‘생기의 정원’ 장면은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보다 선명하게 구현, 독창적인 색채를 드러내도록 강조했다.

음악은 단일 작곡가가 아닌 7명의 작품을 편집해 사용했다. 전통적 분위기를 건지면서도 동화적 판타지보다는 장면 간 인과를 선명히 드러내도록 초점을 맞췄다. 지휘는 박승유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자가 맡고, 협연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광주시립발레단 단원들이 '해적'을 연습하는 장면.

무대와 의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마린스키극장 디자이너 페트르 오클레브가 선보이는 색채의 파노라마는 시장 광장의 활기, 꽃이 만발한 정원, 오스만 궁전의 화려함을 장면마다 선명히 풀어내 서사의 흐름과 조화를 이룬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발레는 언어의 장벽이 없는 보편적 예술이다.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희로애락이 전해지기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며 “아름다운 음악과 무대, 조명, 의상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서 발레의 진면목을 이번 무대에서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적'은 공연 전부터 대한민국발레축제 초청 제안을 받을 만큼 주목받고 있다. 시립발레단이 여러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더욱 수준 높은 공연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CC 양반극장' 어르신들 문화나들이 성료



“태어나 처음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사람들과 같이 나와 영화를 보니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요.”

극장 불빛 아래에서 처음 영화를 본 기억은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추억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다. 광주지역 어르신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특별한 나들이를 즐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ACC재단)이 광주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한 문화 프로그램 'ACC 양반극장'이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그대를 사랑합니다', '국제시장', '영웅', '씨름' 등 네 편의 영화를 선보였으며, 700여 명의 어르신이 함께했다.

'양반극장'은 광주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을 초청해 전담을 둘러보고 추억의 영화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극장 문턱이 높았던 세대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나들이의 즐거움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광주지회와의 협력에 더해 남구·동구·북구 등 자치구와 연계하면서 참여 대상을 넓혔다. 잔여 좌석은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힘들었던 어르신들은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웃는 날도, 눈물의 순간도, 모두 내 삶의 흔적

담양 출신 고육 시인 첫 시집 '그 길을 걷다' 펴내... 19일 출판기념회

담양 출신 고육 시인이 첫 시집 '그 길을 걷다' (예원)를 펴냈다. 작품집에는 지나온 시간과 계절의 변화, 소소한 일상, 가족에 대한 사랑 등을 담담하게 풀어낸 100여 편의 시가 담겨 있다.

고육 시인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기억이 조용히 말을 걸어온다”며 “웃음으로 남은 날도, 눈물로 스친 순간도 하나하나 내 삶의 흔적”이라며 “부끄럽지만 그 마음들을 어줍장게 글로 엮어 보았다”고 전했다.

당초 예술의 길을 꿈꿨지만 다른 삶의 행로를 걸어온 시인에게 예술은 늘 놓아가지고 싶은 '고향' 과도 같았다. 젊은 시절 삶에서 마주한 순간들을 수필로 풀어 작

품집을 발간한 바 있는 저자는 이번에 그동안 써왔던 짧은 시들을 모아 시집으로 발간한 것이다.

“비가 옵니다/ 말없이 땅을 쓰다듬는/ 조용한 위로처럼// 우산을 쓰고 평산길을 걷습니다/ 젖은 흙내음이 골목을 맴돌고/ 산에서 내려온 물기 어린 공기가/ 숨결 속에 스며듭니다//(중략)// 돌아오는 길/ 흙뻑 젖은 나무들이/ 오히려 단정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처럼, / 조용하고 깊은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 평산으로'라는 부제가 붙은 표지시 '그 길을 걷다'는 우중의 산보를 표현한 작품이다. 평산길을 걸으며 떠오르는 단상을 독백처럼, 고백처럼 읊조



리는 화자는 “조용하고 깊은 나라”를 꿈꾼다. “흙없이 내리는 비에 대해 누구도 시끄럽다 말하지 않은 것처럼, 화자는 그렇듯 서로를 배워나가는 삶을 희원한다.

노창수 시인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읽히는 작품들은 유연하면서도 읽는 맛을 선사한다”며 “일상에서 건져 올린 시어들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고 평한다.

고육 시인은 광복회 광주시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농민문학' 수필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수필집 '시선 너머 그 낯선 곳'을 펴냈으며 전남도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다. 시집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회가 오는 19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보훈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16일 임의진 강연

'광주와 인연한 중남미 월드뮤직의 세계' 광주문화재단(대표 노희용)은 16일(오후 7시) 진행하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3회차 주제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시인인 임의진 월드뮤직 연구가가 강사로 나서 강연을 한다. 임 연구가는 이번 강연에서 광주의 대중음악사와

80년 5월 이후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탄생 등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한 쿠바를 비롯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카리브 지역의 음악사를 준비한 다채로운 영상 자료 등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임 연구가는 “이번 강연은 음악을 통해 민중들이 정

취했던 지난한 민주화와 과정, 공동체의 의미를 함께 사유해볼 계획”이라며 “민주화라는 공통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남미국가들의 음악과 관련된 영상이나 음악도 함께 감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연과 아울러 김세형의 들꽃밴드도 무대에 오른다. '생기복덕'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던 김세형은 아프로비트, 레게 등 다양한 월드뮤직을 선보인다.

신청은 온라인과 유선 접수를 통해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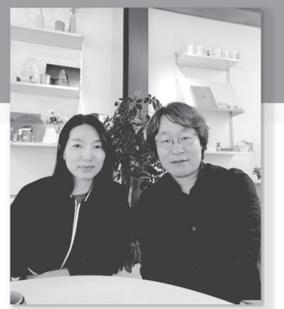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